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교육관 대청소

9월 21일(토) 오전 7:30, 남플 장로회와 EM 주관으로 교육관 대청소 및 미화 작업을 진행합니다. *장로회-교육관 주변 Power wash와 교실청소, *EM-에배실 입구 Sign 설치 및 Gardening.. *가을맞이 대청소 및 미화 작업에 함께 하실 자원봉사자들을 기다립니다.

• 한글학교 추석맞이 행사

9/14(토요일) 오전 9시, 한글학교에서 추석맞이 행사를 합니다.

많은 관심과 행사를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문의/ 김 경 집사 / 954-328-5187

• 주간 사역 안내

매주 수요일 오후 12:30-2:00, 초등부실에서 <동양화 교실>이 있습니다.

*강사- 윤창우 권사

매주 수요일 오전 7시, 새벽예배후 초등부실에서 <중보기도 모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문의- 박인숙 장로

• 유럽지역 목회자 학교

담임목사님은 아래 일정으로 유럽지역 한인 감리교회 목회자 학교를 인도하십니다. 목사님의 강의와 유럽 감리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자 / 9월 10일(화)-13일(금)

장소 / 카파토기아, 튀르키예

강사 / 이성철 목사, 이철구 목사

• 교우&목회자 동정

[등록] 조은우 성도님 (321-795-1378/ 믿음교구- 터키 쿠바 속) 가정, 배수현(이창환) 집사님 (아들 찬승) 가정이 새로 등록하셨습니다. (541-520-0657/ 충성교구- 아이티1속) 환영합니다.

[휴가] 9/14-18일, 이철구 목사님 가정 휴가

9/24-28일, 김학섭 목사님 가정 휴가

*9/15 주일 설교담당-이희문 목사, 9/10-18 새벽 설교담당-김학섭 목사,

*9/14 갯세마네 설교담당-윤성민 전도사

교육부 소식

•유아 유치부 초등부 소식

- 1. 유아 유치부 큐티학교 오픈! 유튜브 "남플유아유치부" 채널에서 '예수님 이랑 나랑' 큐티가 매일 진행됩니다.

•Y.E.M. (Youth, English, Multicultural)

- 1. Sunday Service @ 10:30 am

예배 및 모임안내

• 한어권 장년 모임

예배(Sunday Service) / 1부-8:00 am, 2부-10:30 am
<수요 말씀 묵상> (Q.T) (Wednesday) / 7:30pm
새벽기도회 / (화)~(토) 6:00 am.

• English Ministry (영어예배)

주일예배 (Sunday Service) / 10:30 am
수요 기도회 (Wed. by Zoom) / 7:30 pm
제자훈련 (Thur./Biweekly) / 6:30 pm

• Youth (중고등부)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FNL (금요모임) / 7:00 pm

• Sunday School (주일학교)

Sunday Service (주일예배) / 10:30 am
<예수님이랑 나랑> / 월-토

섬기는 사람들

- EM-다문화.Youth/ 김학섭 목사, 유초등부/ 이지연 전도사
- 유아유치부.미디어/ 윤성민 전도사
- 아이티 선교센터/ 김승돈/김미애 선교사
- 성가대/ 1,2부. 지휘- 심성애, 반주- 윤미아
- 경배와 찬양/ 리더- 유철우, 키보드- 김선영
- 오르간/ 1,2부 조흥숙
- 교회사무/ 김숙형
- 동시통역/ 안현정 안진석 윤수미 김학섭 노재승
- 방송.미디어/ 주일- 김동규 양재일 윤훈로 이정석 박우성
새벽- 이운섭 정철조 김학섭

지난주 헌금 통계 : 총 합계 \$24,241.00

일반헌금 \$18,211.00	십일조: \$8,741.00 주 일: \$1,273.00	남플사랑: \$50.00 감사: \$2,135.00 기타: \$6,012.00
건축헌금 \$500.00	약 정: \$500.00	
선교헌금 \$5,530.00	속 화: \$390.00	중남미: \$5,140.00

**** 온라인 헌금/우편 송금 내역은 다음주 통계에 반영됩니다.**

제43권 36호
2024년 9월 08일



2024년도 표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히12:2)

남플 G.P.S

God's Word
Prayer
Service

담임목사

이철구
Rev.Chulgoo Lee



Global Methodist Church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엡5:19)

P. the Poor in Spirit
O. Oneness in Lord's Hand
E. Encouragement in Christ
M. Mission-oriented Life

남부 플로리다 교회는 아름다운 시(P.O.E.M)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는 교회입니다.

6501 W. Commercial Blvd. Tamarac, FL 33319

교회(954)597-0735. 목사관(248)227-5400

mcosf.org

< 성령강림후 열여섯번째주일 > 예배순서

1부(8:00am) 예배의 부름 Call to Worship / 2부(10:30am) 인도자 Presider

- ▲ 경배찬송 Opening Hymn / 37장 ▲ 경배와 찬양/Worship & Praise
-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7번 많은 사람들, 내게 강 같은 평화, 십자가, 많은 이들 말하고
- ▲ 영광송 Gloria / 6장
-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찬송 Hymn / 417장 (통476) 주 예수 넓은 품에 (Safe in the arms of Jesus) 다같이
- 기도 Prayer / 노효영 권사 기도 Prayer/ 황영순 권사
- 찬양 Choir / 호산나 찬양대 찬양 Choir / 할렐루야 찬양대
- 내 주되신 주를 참사랑하고 - - 주의 뜻대로 살게 하소서 -
- 교회소식 Announcement / 영상 광고
- ▲ 봉헌 Offering / 다같이

성경봉독 Scripture / 히브리서(Hebrews) 13:16

< 선행과 제사 >

Good deeds and sacrifices

설교 Sermon /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 파송찬송 Closing Hymn/ 459장 (통514) 누가 주를 따라 (Who is on the Lord's side)
- ▲ 축도 Benediction/ 이철구 목사 (Rev. Chulgoo Lee)

▲ 표에는 일어섭니다.

2024년 9월 예배를 섬기는 분들

	예배 안내	헌금/안내	성경 봉독	대표기도	친교봉사
오늘 9월 8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노효영권사	소망교구
	2부			황영순권사	
다음주 9월 15일	1부	온유교구	담당자	임승준집사	시령교구
	2부			김창림장로	

금주의 말씀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엡4:3)

*인용성구/ 잠15:4 눅10:27,34 딤후6:18,19
엡2:10 딤후2:14 골2:8 엡4:3

한글학교 추석맞이 행사

9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
문의: 김경 집사

행사를 위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금주 애찬 섬김

금주 (9월 8일)	다음주 (9월 15일)
김세희, 김동규권사	빅소임권사
준생일감사	생일감사
소망교구	사랑교구

지난 주 일보에 올라친 ‘산 산’ 태풍의 피해상황을 뉴스를 보는데, 7년 전에 마이애미를 내리 친 ‘Irma’ 태풍이 어제 일처럼 떠올랐습니다. 2017년 9월 10일, 우리 지역을 내리 친 Irma 태풍이후,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상이 행복이란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당시 Irma의 여파로 전기 없이 여러 날을 지내는 것은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그 후 전기가 들어온 것은 일상으로의 회복이요 단조로운 의 외곽였는데, 그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을 사노라면 이런 저런 일로 마음이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믿었던 사람이 배신을 하고, 자신했던 건강에 적신호가 오고, 잘나가던 사업이 파산하는 등, 갑작스럽게 태풍이 내리칠 때 그 인생비애를 뒤로 설명하겠습니까?

시인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시42:5)라며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아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에게 소망을 두고 자신을 다스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태풍을 만날 때에 당성을 찾아 나오는 자를 기뻐하며 맞이하십니다. “여호와와는 선하시며 만일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나1:7).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어느 국면에서든 고난이 찾아올 때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열려하기보다,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임을 알고, 시인처럼 주의 이름을 ‘갈급하게’ 부르며 그에게 나아가 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시42:1). 유대 지역에서 아생하는 사슴들은 건기 때에 허기지니까 광야의 마른 풀을 먹는 경우가 있는데, 그리고 나면 목에 불이 붙은 듯 한 고통을 느껴 미친 듯 시냇물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 상황을 잘 표출해 주는 단어가 ‘갈급하다’입니다. 이 말은 마른 풀을 먹은 사슴이 크게 소리 지르며 물을 찾아 애매는 것을 의미하는데, 사슴은 사냥꾼에게 노출되는 위험을 감수 하고라도 과성을 지르며 물을 찾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그런 사슴의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음을 묘사한 것입니다.

Irma가 남부 플로리다, 그것도 우리 교회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속보가 일주일 내내 전해질 때 어땠습니까? 나는 정말 목마른 사슴처럼 여기저기 시냇물을 찾았습니다. 우리 교회 새 성전 건축이 한 장 진행 중이었는데, 본당의 철골 기둥은 다 세워졌고 그 위에 지붕 강판이 반쯤 덮였을 때, 그 강력한 태풍이 우리 지역을 관통한다는 뉴스가 계속 되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실 당시 우리 교회 성전 건축에 대해 모두가 기뻐하며 참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교회 밖에는 굶지 않은 시선으로 우리 바라보는 이들이 적잖이 있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Irma가 오고 있었으니, 할 수 있었던 일은 ‘갈급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때 전국적으로 많은 목사님들과 지인들이 중보기도를 한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당시 그런 한 줄기 생수 같았습니다. 순전히 제 믿음이지만, 그 후부터 Irma의 방향이 얼마씩 서쪽으로 틀어지기 시작했고, 우리 지역에 태풍이 임했을 때는 3등급으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태풍은 강력하여 수많은 도로의 가로수가 뽑혀 이곳저곳에 나뎠고, 그러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는 그 그런 상황에도 계속 성전을 건축하였고 마침내 완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목소리를 내시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렘10:13). 우리 하나님은 자연현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태풍 같이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 할 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오래 전에 탈렌트 최불암씨가 한 보안 업체에 광고 모델이 되어 이렇게 외쳤습니다. "잠귀도 잠귀도 불안까지 잠글 수는 없습니다!" 방문이나 금고 같으면 자물쇠로 잠그면 되겠지만. 마음의 불안은 그런 걸로 잠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태풍이 몰아치고 인간적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해 마음이 심히 놀릴 때 “정원지기는 가지치기를 할 때 나무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을 마음에 품고 주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주를 뵈고 그 품안에 거하는 기쁨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우리교회가 지원하는 선교지 (선교사)

충성교구1 (중국-장은광)	충성교구2 (아이티1-김승돈)	충성교구3 (아리조나-이영호)
믿음교구1 (터키-송정렬)	믿음교구2 (쿠바- 김기현)	믿음교구3 (카자스탄-양재성)
믿음교구4 (아이티2-정광)	온유교구1 (볼리비아-김영모)	온유교구2 (도미니카-피터정)
소망교구1(니카라과1-김향자)	소망교구2 (이라크-손기주)	사랑교구1(니카라과2-김규현)
사랑교구2 (파나마-김재한)	은혜교구 (브라질-지덕진)	드림교구(키르기스스탄-임다윗)